'The Global Ecocide Of Korean Companies'

- I note three incidents this year: LG Chem's India Bikashapatnam gas disaster(5.7), Kepco and Dosan's overseas coal power plant investment structure decision. Korindo and Posco international's illegal land exploitation of Indonesia Papua. Besides, there is Samsung's suppression of Vietnamese factory workers and sexual exploitation. SK's collapse of the Laos dam in 2018.
- So, the 2nd AYARF theme will be "The global ecocide, also known as ecosystem exploitation of Korea companies Focus on chemical accident, overseas coal power plants investment, and land exploitation of palm oil farm."
- Key question is that 'Why are Korean companies notorious as villains, especially in the destruction of the global ecosystem? What is the structural cause of them?" Korean companies are making Asia as hell now.
 - A huge paradox is at the center of this problem. First, the stock market does not reflect the influence of ecocide. Second, 'greenwashing' works well in this process. Thir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are operative together, such as project financing. Fourth, the company's ecosystem destruction is committed to 'double standard'. Fifth, there is a back-scratching alliance in the local corrupt government.
- These are the causes. First,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called 'bulletproof clothing', the exclusive power of the owner. Second, the investment structure of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which evaluated only by profitability. Third, the Korean government's protection companies and connivance when the accident begins. Fourth, the lack of media awareness and be bought off. Fifth, the lack of power capacity in civil society.
- The following are the alternatives I suggest. First, change corporate governance, the introduction of a joint labor-management decision system. Second, the expansion of sustainable, ESG, SRI investment and regulation policy changed. Third, the expansion of land tax and carbon tax. Four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 application of Georgism. Fifth, the expanded Global Green New Deal, not the National Green New Deal.
- Ultimately, I'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cases of exploitation by Korean companies around the world. And based on these cases, I try to make a theoretical solution, a theory that can analyze these situations critically. At the same time, I'm going to research, make it public, and active. I want to gather people in AYARF and expand my vision.

1.What is ecocide?

- a.Definition
 - i. Ecocide is criminalized human activity that violates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such as causing extensive damage or destroying ecosystems or harm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 species (including humans). (Wikipedia)

ii....



BY THE GECKO PROJECT AND MONGABAY ON 25 JUNE 2020 Mongabay Series, Indonesian Forests, Indonesian Palm Oil

MONGABAY



The Consultant: Why did a palm oil conglomerate pay \$22m to an unnamed 'expert' in Pap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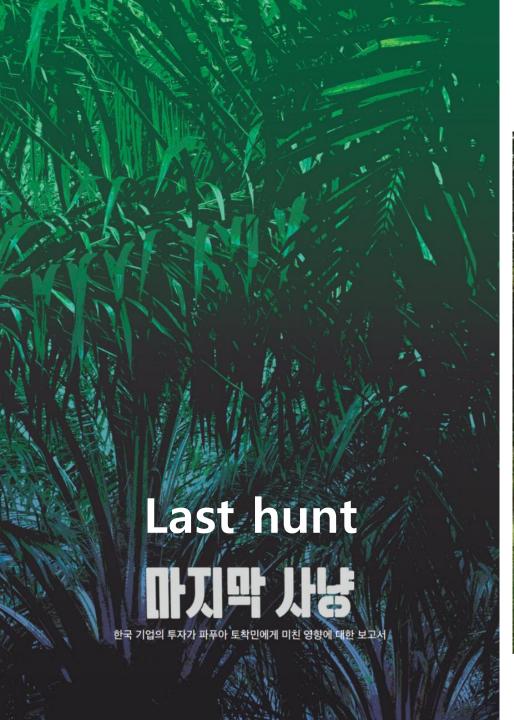
• In a year-long investigation with The Gecko Project, the Korean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Newstapa and Al Jazeera, Mongabay traced a \$22 million "consultancy" payment connected to a major land deal in Indonesia's Papua province.

• It took us from South Korea and Singapore to the heart of the largest rainforest left in Asia, to find out what role the payment played in making the Korindo Group one of the largest oil palm producers in the region.

Today, Korindo controls more land in Papua than any other conglomerate, and it has assumed many of the functions of the state in one of Indonesia's most neglected and militarized areas. We estimated that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it had exported products worth \$320 million using timber harvested as it cleared the rainforest for plantations in the province. But indigenous Papuans we interviewed said Korindo had failed to keep its promise to improve their lives through jobs and development. We found infants suffering from malnutrition,







Right of Indigenous people 토착민의 권리



어필에서는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의 셀릴(Selil)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6시간, 다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9시간을 간 뒤, 다시 차를 타고 5시간, 푹푹 발이 꺼지는 늪지대를 1시간 넘게 걷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을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서야 셀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숲으로 갔어요."

셀릴 마을에서 만난 마마 에디타는 예전에는 숲에서 몇 주씩 머무르며 주식인 사고(sago)도 수확하고,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팜유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테이션과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숲은 사라졌고, 강도 더러워져서 더 이상 먹거리를 숲과 강에서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마 에디타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기능적으로만 필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조상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역사책이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라는 신화(myth)를 믿는 근대인들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근대인들은 힘을 앞세워 숲과 땅을 파헤치고, 숲과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거침 없이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적인 식량, 금융위기로 촉발된 수출용 식량 및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한 투자 열풍으로 세계 곳곳의 토착민들(indigenous peoples)의 숲과 땅이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토지 강탈(land grabbing)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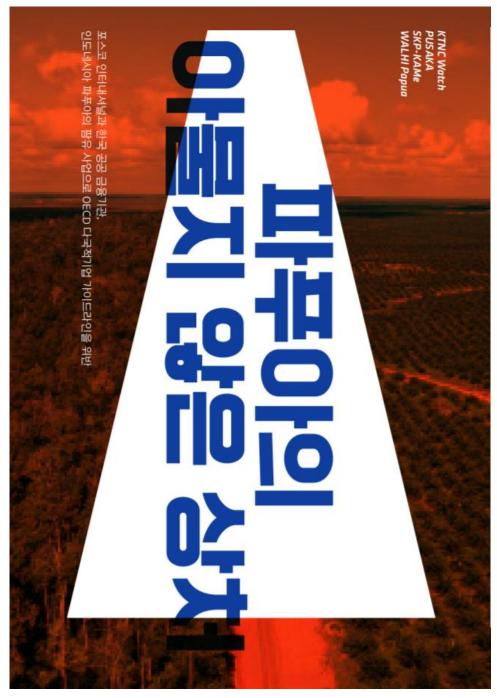
오랫동안 숲과 땅에 의존하여 살아온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파푸아 섬에도 2010년 이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투자가 시작되었고 한국기업들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마 에디타와 같은 토착민들의 숲과 땅은 팜유나 사탕수수, 산업용 목재 등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토착민들은 숲과 땅 그리고 역사와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숲은 우리의 집이고, 땅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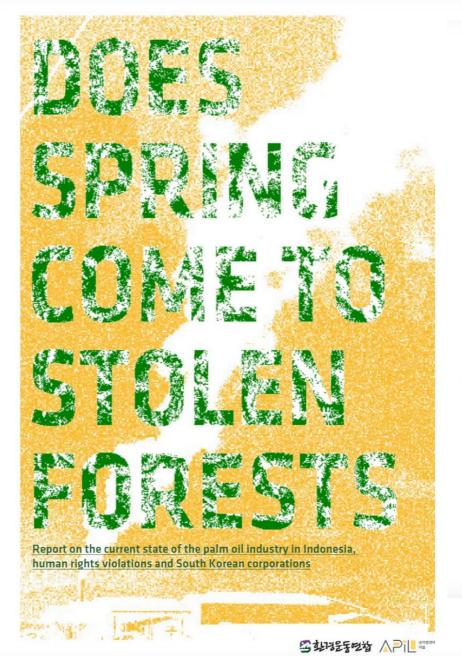
마마 에디타와 마을 사람들의 삶은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땅과 숲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생명과 영원을 물려주기 위하여, 땅과 숲을 지키는 이들의 싸움에 이 보고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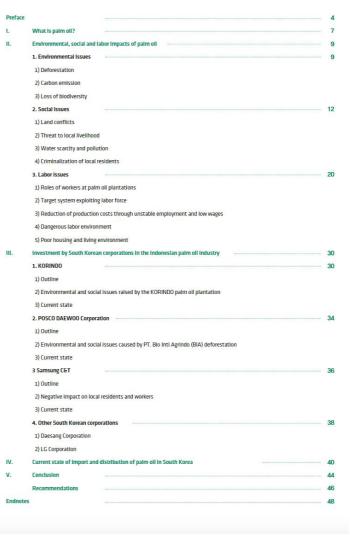


[Press Release] Unhealed Scars in Papua – POSCO International and Korean public financial providers' violation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operation of oil palm plantation in Papua,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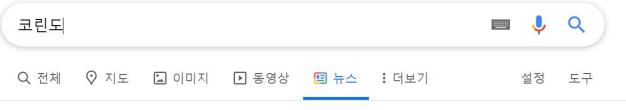






Green Washing





검색결과 약 1,660개 (0.14초)

👤 한국일보

'오지 개척자' 코린도그룹, 파푸아에 마스크 12만장 전달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기업 코린도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 최동단 파푸아 지역에 ... 2020. 4. 9.



👤 한국일보

印尼서 역경 딛고 창립 50년 맞은 코린도그룹

코린도(Korindo)는 한국(Korea)과 인도네시아(Indonesia)를 뜻한다.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은 이날 자카르타 도심 호텔에서 열린 50주년 기념 행사 ... 2019. 12. 22.









FINANCIAL TIMES



CORONAVIRUS BUSINESS UPDATE

Get 30 days' complimentary access to our Coronavirus Business Update newsletter



Get the newsletter now

Latest on South Korea

Hedge funds chafe at extension of South Korea's short-selling ban South Korea urged to follow Japanese lead on coal finance ban

Asia's biggest market for ESG debt hit by 'greenwashing' concerns

South Korea



Daewoo to cultivate Madagascar land for free



Song Jung-a and Christian Oliver in Seoul, and Tom Burgis in Johannesburg NOVEMBER 20 2008



Daewoo Logistics of South Korea said it expected to pay nothing to farm maize and palm oil in an area of Madagascar half the size of Belgium,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largest farmland investment of this kind.

The Indian Ocean island will simply gain employment opportunities from Daewoo's 99vear lease of 1.3m hectares, officials at the company said. They emphasised that the aim

Daewoo, from bankruptcy to South Korea conglomerates

The Daewoo Group was established in 1967 and grew into the second largest South Korea chaebol (conglomerate). Like many other Asian multinational companies, Daewoo was hit hard by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declared bankruptcy in 1999. This box shows the evolution of the Daewoo Group after 1999, when the company returned with a vengeance following the discovery of offshore gas fields in Myanmar and then diversified its portfolio. (Highlighted entries show Daewoo's agri-resources business interests). [15]

2000: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spun off from Daewoo Corporation

2004: Discovered Myanmar A-1 offshore gas field; Reported sales over KRW 5 trillion (roughly US\$ 4,5 billion)

2006: Discovered Myanmar A-3 offshore gas field

2008: Concluded contract for gas sales from Myanmar offshore gas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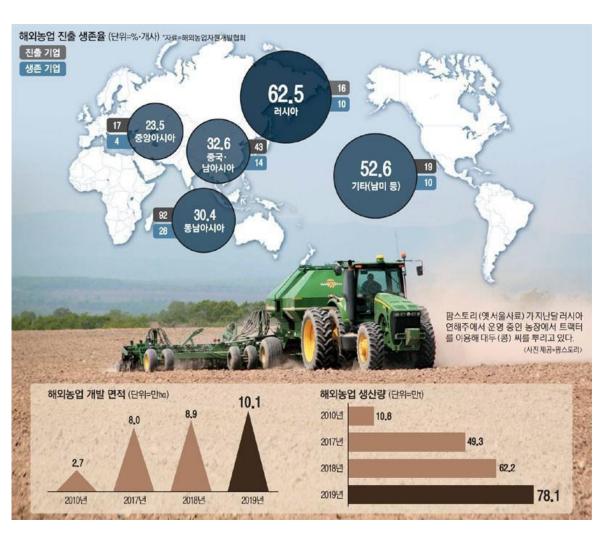
broke the KRW10 trillion (roughly US\$ 9 billion) mark in sales

2009: Declared commercial vi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Myanmar's offshore gas field

2010: Incorporated into the POSCO Group

2011: Launched into palm oil plantation business in Indonesia

Acquired East Sea 6-1 field exploration rights.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지금은 살짝 잊힌 경제 현상이 있다. 바로 곡물 파동이다.

2007~2008년 전 세계가 이 곡물 파동에 신음했다. 흉작으로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고 재고가 바닥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밀, 옥수수, 대두(콩)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그중에서도 밀 가격은 1년 새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쌀자급률이 100%를 넘는 덕분에 화(禍)를 면했지만 우리가 그다음으로 많이 먹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사료용 곡물이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 중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사료용 곡물은 수입 의존도가 95%를 넘는다. 글로벌 곡물 파동에서 우리만 예외가 될 수없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당시 위기의식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MB정부 때 뿌려진 해외농업 씨앗

2008년 2월 들어선 이명박(MB)정부가 서둘러 곡물 파동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 정부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하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에 대기업 자금까지 끌어들여 글로벌 곡물 유통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곡물 엘리베이터(터미널) 사업이다. 곡물 엘리베이터는 곡물을 모아 분류하고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카길 등 글로벌 곡물 메이저들은 이런 시설을 장악해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해외 농지 투자다.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 확보한 농지에서 옥수수, 대두, 과일 등을 직접 재배하는 방식이다.

'고의 방화 의혹' 부인하는 코린도 그룹

○ 신한슬 기자 | □ 호수 454 | ○ 승인 2016.05.31 18:16











특집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있다?

'고의 방화 의혹' 부인하는 코린도 그룹

코린도 그룹은 친환경 기업이 아니다

팜농장 만든다고 무차별 벌목... "경유보다 온실가스 3배 더 내뿜는다"

입력 2018.03.18 18:38 | 수정 2018.03.19 09:53 | 지면 A4

'신재생에너지=친환경'이라는 착각

바이오디젤이 친환경?

팜농장 개간 과정에서 산림 줄어들어 CO2 흡수↓ 팜 재배때도 물 다량 사용

EU, 열대우림 파괴 이유로 2021년부터 팜오일 퇴출

한국은 바이오디젤 혼합률 2.5%→3.0%로 '역주행' 운전자 610억원 추가 부담

실시간 인기기사

- 1 [연예 마켓+] "하루에 수십억 손
- 2 [법알못] 남편이 자꾸 친자확인
- 3 홍석천도 결국 이태원 떠난다.
- 4 韓게임 빅3, 40조 대박...해리포!
- 5 [이슈+] '놀면뭐하니'에 이름 뺏

이 시각 관심정보 AD

- ㆍ 뚱보균 없애는 "신물질" 발견으로
- · 이번주 로또1등당첨자는 정해져 \$
- ・로또1등 수동으로 적고 1등당첨!!
- · 로또 6자리 "1등당첨번호" 적고 1·

"50년 개돼지 취급 못 참겠다"…파푸아 반정부 시위 격화

등록:2019-09-01 20:42 수정:2019-(

f ¥ /> ★ ==

군 장교 등 인종차별 발언 도화선 2주째 시위 이어지며 독립 요구도

시위 학생 '반역죄' 체포·군경 증파 '유혈 분쟁' 격화될라 우려 고조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메단시에서 31일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파푸아 출신 학생들이 얼굴과 몸에 파푸아 분리주의자 들이 독립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새벽별 기'를 그린 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한편, 파푸아의 독립을 촉구하고 있다. 메 단/AP 연합뉴스

국제 많이 보는 기사

'블랙 팬서' 채드윅 보즈먼 대장암 투병 끝 사망…향 년 43세



2. 벨기에 제치고 '인구 대비 최다 사망' 페루, 묫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3. 미국이 남중국해에 정찰기 띄우자 중국 탄도미사일로 맞대응



바이든 무난히 승리?…미 대선 예측 만만치 않다



5. 아베 "총리직 사임하겠 다…차기 총리 임명때까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 좋아요 32만개

NativeLab: PORTFOLIO





[Fact check] Investigation into LG Chem gas leak in India reveals negligence and lack of safety protocols

Posted on: Aug.2,2020 12:43 KST Modified on: Aug.2,2020 12:43 KST









No veteran staff on site to deal with emergencies; employees didn't even sound alarm at time of accident





A tank of styrene gas at an LG Chem factory in Visakhapatnam, India; the right image showing at 3:15 am on May 7. (Indian investigation report)

Editorial · opinion

[Editorial] All of S. Korea needs to unite to successfully fight o...



[Column] Most people are in the center facing the left



[Column] Is the Moon administration really page 2.

[Column] Why was Korea divided after Wor instead of Japan?

[Editorial] Cooperation on inter-Korean relat

LG화학

KRX: 051910



759,000 KRW -3,000 (0.39%) **↓**

8월 28일 오후 3:30 GMT+9 · 면책조항

1일 5일 1개월 6개월 YTD **1년** 5년 최대





한국전력공사 (한국

SAMSUNG



is this Korea's idea of a

Despite promising a Green New Deal, Korea is currently considering financing Vung Ang 2) and Indonesia (Jawa 9 and 10) The world is way past the point of being able to build any new fossil fuel projects.

President Moon, if you don't want to be considered a climate villain. Korea will end its involvement in new coal power stations.

























호주 청소년 "삼성 불매" 예고에…삼성 "호주 석탄터미널 손 떼겠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석탄발전소 짓는 삼성…"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 외면" 비판 거세지는 배경









유럽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신규 석탄 화력 발전 7기가 가동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기후변화협정 기준의 3.17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5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10년 내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발전소는 워낙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금 새로 지으면 한국이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목표에 맞출 수 없다"며 "석탄발전소를 지어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린뉴딜 예산 73조원에서 일부를 온실가스 감축에 쓴다고 했는데 목표로 내놓은 게 5년간 1,229만톤"이라며 "석탄발전소 한 곳에서 2~3년이면 배출할 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